

이제, 함께! 승리를 준비합시다

구 여권 김경민 이사 사퇴... 고대영 체제 붕괴 가속

지난 11일 김경민 교수가 KBS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구 여권 추천 몫으로 박근혜가 임명한 김경민 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긴 추석 연휴를 보낸 이후 전해진 첫 이사 사퇴 소식에 파업 대오의 열기는 한층 더 달아올랐다. KBS 이사회 정상화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온 순간, 총파업 승리는 가시화됐고 언론 적폐 청산의 서막이 드디어 시작됐다.

고대영 사장의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과 기자 피디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전보 발령이 난무하던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KBS 이사회. 특히 김경민 이사를 비롯한 구 여권 다수 이사들은 KBS의 경영이 공적 책무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 여당의 입장만을 무조건적으로 대변해왔다.

이런 이사회에 몸담았던 김경민 이사의 자진 사퇴는 KBS의 최고결정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천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또한 촛불 혁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응축된 언론 개혁에 대한 거대한 열망이 고대영 체제를 감싸고 있던 적폐 세력을 부수고 균열시킨 위대한 승전보라 할 수 있다.

총파업 참여자 증가...재방송 비율 급증 '종편보다 못해'

총파업 43일째. 대부분의 제작진이 현장을 떠난 KBS 방송 프로그램은 이제 종편 수준으로 전락했다. 총파업 돌입 이후에도 새노조 가입이 이어지면서 파업 참여자는 더욱 늘어났고, 그 여파는 즉각 제작 능력 상실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1TV와 2TV의 평일 프로그램 가운데 절반가량이 재방송으로 편성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2015년 TV조선과 채널A의 재방송 비율이 각각 42.1%와 38.3%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KBS의 방송 기능은 사실상 종편보다 뒤떨어진 상황이다.

보도 분야의 붕괴는 더욱 심각하다. KBS 대표 브랜드인 '뉴스9'는 방송 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목소리까지 동원돼 '시간 때우기' 뉴스를 제작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파업 참여가 쉽지 않은 해외 특파원들을 압박해 국제뉴스로 도배하는가 하면, 게

이트 키팅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잘못 번역해 방송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또한, 매일 오전 6시부터 두 시간 동안 1,2부로 나뉘어 밤사이 벌어진 새로운 국내외 뉴스를 전하던 '뉴스광장'은 앵커들이 모두 하차한 가운데, 전날 9시 뉴스가 재탕되고 있다. 사실상 '재방송 뉴스'라는 평가와 함께 MBC의 '녹화 뉴스'에 버금가는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

'식물 사장' 고대영... '경영 능력 상실'은 사장 해임 사유

우리는 기억한다. 2014년 길환영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KBS에 대한 경영 능력 상실'이었다. 파업 참여자 급증과 이로 인한 방송 프로그램 파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바로 경영 능력의 상실이다. 구 여권 이사가 다수였던 당시에도 사장의 역할 부재는 해임으로 이어졌다. 이제 김경민 이사의 사퇴로 이사회 재구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대영 체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국민들이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바꾸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가는 동안, 공정방송을 향한 KBS인들의 반성과 개혁은 조합-비조합,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숙명과도 같은 과업이다. 파업 투쟁의 전망을 낙관하지 못했거나 자리를 지키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영방송 KBS가 바로 서기 위한 투쟁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투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처 치유의 시간도 고되다. 승리의 기세를 잡은 순간, 아직 남아있는 구성원들의 파업 합류는 KBS 정상화를 앞당기고, 조직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다. 고뇌의 시기는 지났다. 언론 적폐의 울타리로 낙인 되기보다 현 상황을 조속히 타결하는 '화룡점정'이 되길, 투쟁 현장의 동료들은 진정 소망한다.

총파업 투쟁지침 8호

1.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은 기본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열외 없이 총파업에 참여한다.(부분 파업, 임의 열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2. 파업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측의 불법적인 편성 개편에 일절 응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3. 보직 사퇴를 선언한 조합원과 이른바 '유보조합원'도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한다.
4. 파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개인별 불이익은 조합원 전체가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징의대책위원회와 조합원은 사측 임원 또는 간부가 파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할 경우 이를 조합 상황실(02-781-2980,2981)로 신고한다. 조합은 해당 책임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이인호 이사장



차기환 이사



조우석 이사



김경민 이사



강규형 이사



이원일 이사



변석찬 이사

'이사회 해체' 투쟁의 전망

KBS이사의 마지막 소임은 '자진 사퇴' 뿐!

이사회 재구성 '초읽기'...언론 적폐 청산 본격화

임기보장을 명분으로 내년 8월까지 버티기에 들어갔던 다수 이사(구 여권 추천) 7명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그 파열음은 김경민 이사로부터 시작됐다. 긴 추석연휴를 마친 직후 나온 김경민 이사의 사퇴에 나머지 이사 여섯 명은 적잖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제 풀에 꺾일 줄로 기대했던 새 노조의 파업대오가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조선일보가 2면이나 지면을 할애해 '이사 지키기'에 들어갔고, 김경민 이사 사퇴 직후 열린 임시이사회는 그야말로 막말대잔치, 여섯 명의 이사들은 비이성적 감정들을 쏟아내며 난장판을 벌였다.

이사 책무 방기-개인 비리 "책임 묻겠다"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KBS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현 이인호 이사회는 방송법에 보장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려는 커녕 정권의 손발이 되어 고대영 체제를 옹호하고 무능경역을 방조했다. 고대영 체제를 견제 감시하는 대신에 이사로서 누릴 수 있는 떡고물에 취해 KBS를 나락의 길에 떨어뜨린 책임에서 다수 이사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인들이 '정치 보복'운운하며 적폐 청산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행여나 흉내 낼 생각하지 마라. 새노조는 다수 이사들이 방송법에 명시된 이사의 책무를 소홀히 한 과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사회 해체-재구성은 곧 고대영 체제 끝장

KBS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지금까지 11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 이사들이 반대할 경우 안건 통과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6 대 4구도로 달라졌다. 이제 1명 이상의 이사가 그동안 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새로운 KBS를 위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고 사퇴한다면 상황은 확연히 달라진다. KBS 이사회에서 '고대영 사장 해임안'이 상정되고, 가결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승리가 눈앞에...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KBS를

얼마 남지 않았다. 이사들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새노조의 힘은 더욱 강고해지고 있으며 조합원 동지들의 기세는 넘쳐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언론장악의 적폐세력들은 종말을 앞두고 있다. 90년 방송민주화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는 새노조는 조합 출범이후 수없는 싸움과 고난을 뚝뚝뚝 걸어왔다. 이제 그 결실이,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적폐청산과 공정방송사수의 역사적 투쟁에 모든 KBS인들이 함께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KBS를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자.

아직, 제작 중인 선배에게...

파업이 시작되기 전, 같이 저녁을 먹은 게 벌써 한 달도 더 지났네요. 선배나 저나 파업 참여를 놓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덕담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꽤나 '쿨'한 사람들 같아 보였죠. ^^

"정권 교체기에 새 권력의 의도대로 KBS 사장을 바꾸는 건 모양이 좀 그렇다." "시청자에 대한 의무,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 나라도 남아서 제작해야겠다." 하지만 선배는 서둘러 마무리 짓고 돌아오라고 했죠. 파업 길어지면 힘들다며 이기든 지든 빨리 돌아오라고 했죠.

거기다 대고 저는 고대영 사장이 후보 등록할 때부터 반대했으니, 정권 교체기와는 무관한 싸움이라고 답했고, 원하는 결과를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 손으로 얻어내려고 한다고 선배께 양해를 구했죠. 그리고 선배 고생 덜하시게 서둘러 이기고 오겠다고.

하지만, 이제 선배께 다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싸움 끝내러 나와주세요. 김경민 이사가 사퇴를 했고, 다른 이사들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고대영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새로운 이사회 구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선배가 말씀하신대로 서둘러 마무리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배께 파업에 함께 나서달라고 부탁드려요.

선배도 지난 9년간이 만족스럽지 않았잖아요. 온도차가 있겠지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KBS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잖아요. 승리의 확신이 없을 때, 선배한테 함께 하자고 못했던 점은 제 부족함이라고 이해해주세요. 제가 투사는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하나 설득할 만큼 아는 것도 없지만, 40일 넘게 민주광장에서, 거리에서 팔뚝질하며 이야기 나누다보니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선배, 이 파업 끝내야 합니다. 하루 빨리요. 그리고 파업이 끝나는 시점에 회사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KBS가 더 빨리 정상화됩니다. 회사를 아끼는 같은 마음이라면, 파업의 시작 시점은 달랐어도, 적어도 중지부는 함께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한 후배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 배운 말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파업 투쟁, 그 승리의 마침표는 바로 선배의 결단입니다.

선배, 함께 해요.

2017년 10월 14일 밤. KBS 1TV를 켜놓고 후배가 몇 자 적었습니다.